

오픈액세스 전환계약서 분석 연구*

Study on Open Access Transformative Agreement

정 영 임 (Youngim Jung)**

안 병 군 (Byoung-goon An)***

< 목 차 >

I. 서론	IV. 구독 라이선스 계약서와 OA 전환계약서 비교 분석
II. 선행 연구	V. 결론
III. OA 전환 계약 체결 및 공개 현황	

요약: 전자정보 라이선스 계약의 새로운 방안으로 OA 전환계약이 제시된 이후 현재까지 OA 전환계약의 체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OA 전환계약의 특성상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OA 전환계약서의 표준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 OA 전환계약의 현황을 조사하고 유형별 OA 전환계약서와 구독 계약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OA 전환계약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OA 전환계약서의 공개는 보편화되지 못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OA 전환계약서와 구독 계약서의 전반적인 구조는 유사하지만, 세부 조항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혔으며 상이한 부분을 유형화하였다. OA 전환계약서에는 전환계약과 관련된 세부 조항이 신설되거나 기존 구독 계약서의 조항에 전환계약 관련 내용이 추가되어 있었으며 OA 전환계약과 무관하게 내용상 차이가 있는 조항도 확인되었다. 분석을 통해 계약 유형에 따라 계약서의 세부 조항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도서관 사서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OA 전환계약서의 표준화가 필수적임을 밝혔다. 본 연구는 OA 전환계약의 현황을 조사하고 계약 유형별 실제 계약서의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표준계약서 개발의 기반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오픈액세스, OA 전환계약서, 전자정보 라이선싱

ABSTRACT: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OA transformative agreement as a new way of licensing electronic resources, the number of OA transformative agreements has continued to grow. Despite the wide range of content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agreement due to the nature of the OA transformative agreement,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OA transformative agreements. As a basis for developing a standard for OA transformative agreements,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OA transformative agreements and analyzes the differences between two types of OA transformative agreements and the subscription contract.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OA transformative agreement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worldwide, but the disclosure of OA transformative agreements has not been universalized. The overall structure of two different types of OA transformative agreements and a subscription contract is similar, bu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detailed clauses. In the OA transformative agreement, the detailed clauses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 of the transformative agreement were newly created, or the details of the transformative agreement were added to the existing clauses of the subscription agreement. There were also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ypes of agreements, identifying clauses that differed in content regardless of the OA transformative agreement. The study concluded that it is important to standardize the OA transformative agreement, as the number of different clauses between agreement types may increase the burden on librarian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standardized agreements by examining the overall status of OA transformative agreements and analyzing actual agreements.

KEYWORDS: Open Access, OA Transformative Agreement, E-resource Licensing

* 이 논문은 2024년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기본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임 (과제번호: (KISTI) K-24-L1-M1-C2).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전임교원 (acorn@kisti.re.kr / ISNI 0000 0004 5935 5842) (제1저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rns0305@kisti.re.kr / ISNI 0000 0005 0283 2705)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4년 5월 23일 • 최초심사: 2024년 6월 4일 • 게재확정: 2024년 6월 17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2), 267-291, 2024. <http://dx.doi.org/10.16981/kliss.55.2.202406.267>

© Copyright © 2024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1990년대 중반 디지털화된 학술 및 과학출판물이 등장하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도서관에서는 인쇄 자료의 소장에서 전자자원의 접근으로, 정보자원 소유에서 이용 권한으로 이용 방식을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도서관과 출판사 간 계약에도 개별 학술지 단위의 구매 계약이 아닌, 전자 학술지 묶음(package, 이하 패키지) 단위의 전자자원 라이선스 계약이 새롭게 도입되었다(Okerson, 1997). 통상적으로 출판사 측의 법률가에 의해서 작성되어 계약에 활용되는 전자자원 라이선스 계약서는 영문으로 작성되고 출판사별로 상이한 양식과 용어를 사용하며 학술 커뮤니티의 변화와 최신 기술 현황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2002년 ‘부다페스트 선언’과 2003년 ‘베를린 오픈액세스 선언’ 이후, 개방적 지식정보생태계를 조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 각지에서 여러 주체에 의해 전개되어 왔으며, 오픈액세스(Open Access, 이하 OA) 운동의 방식 또한 그린, 골드, 브론즈, 전환, 다이아몬드 경로 등 다양하다. 2018년 ‘제14차 베를린 오픈액세스 컨퍼런스’에서 도서관 자료 구독료를 OA 출판비로 전환하는 계약, 즉 OA 전환계약(Open Access Transformative Agreement)이 대규모의 OA 전환을 위한 비용중립적 방안으로 제안되었고, 2019년 이후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공포한 국가적 지침에서는 국가연구개발성과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OA를 요구하며 OA 전환계약을 뒷받침하고 있다. ‘베를린 오픈액세스 선언’ 20주기를 맞아 2023년에 개최된 ‘제16차 베를린 오픈액세스 회의’에서는 OA 전환계약이 신속한 대규모 OA 전환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었음을 확인하였고, ESAC¹⁾ Transformative Agreement Registry(이하 ESAC 레지스트리)에 등재된 전 세계 OA 전환계약은 954건에 달하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2024.02.16. 기준). 국내에서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2020년 Elsevier, 2021년 Wiley 출판사와 체결한 OA 전환계약을 시작으로 컨소시엄 혹은 개별 기관 단위의 OA 전환계약 체결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정영임, 2023).

OA 전환계약서도 전자자원 라이선스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해외 출판사에서 제시하는 영문 계약서가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출판사마다 계약서에 기술하는 용어가 상이하다. 게다가 OA 전환계약서에는 기존 구독 계약 관련 조항과 함께 OA 출판 대상, OA 출판 콘텐츠의 소유권 및 재사용 권한 관련 조항까지 추가되면서 표현의 다양성과 내용의 복잡성이 한층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도서관에서는 다수의 영문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이용자 또는 저자가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서에 온전히 반영시키지 못하거나 계약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또한 전자정보 라이선싱 조건 분석과 표준계약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것에 비해 OA 전환계약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반영한 OA

1) 개방적인 연구 환경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가 커뮤니티로, 웹사이트(<https://esac-initiative.org/>)를 통해 전 세계 OA 전환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있음.

전환계약서 분석 및 표준화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A 전환계약서와 기존 전자자원 구독 계약서의 기본구조 및 세부 조항 비교를 통해 OA 전환계약서가 전자정보 라이선스 계약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OA 전환계약서에 추가된 조항과 관련한 이슈를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한 사전 조사로 ESAC 레지스트리를 분석하며 OA 전환계약 현황과 OA 전환계약서 공개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후 주요 출판사 중 하나인 Elsevier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존 전자자원 구독 계약서와 OA 전환계약 유형별 계약서의 기본구조와 세부 조항을 파악함으로써 계약서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Elsevier는 오랜 시간 동안 패키지 단위의 전자정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왔을 뿐만 아니라,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30건 이상의 OA 전환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Elsevier의 경우 ESAC을 통해 여러 유형의 OA 전환계약서가 공개되고 있고 컨소시엄에 품목을 제안하며 제출한 구독 계약서 샘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형별 계약서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OA 시대 계약서의 쟁점을 논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사례분석과 문헌분석을 진행하였다.

II. 선행 연구

1. 해외 표준계약서 개발 사례

합리적인 계약 과정을 위해 유사 조항을 포함한 여러 라이선스를 통합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Cox, 2000), 출판사, 개별 도서관, 컨소시엄, 국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라이선스 계약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개발된 LMLA(LibLicense Model License Agreement), 컨소시엄 계약 과정에서 개발된 NESLI2(National Electronic Site Licensing Initiative 2)와 CNSLP(Canadian National Site Licensing Project), 라이선스의 대안으로 개발된 SERU(A Shared Electronic Resource Understanding)를 조사하였다.

1990년대 중반 디지털화된 학술 출판물이 등장하고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전자자원 라이선스 계약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계약을 이해하고 협상에 도움이 되는 웹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CLIR(Council on Library and Information Resources)의 지원을 받아 LibLicense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Okerson, 1997). LMLA는 LibLicens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CLIR과 DLF(Digital Library Federation), Yale 대학의 후원을 받아 개발된 라이선스 계약모델이다. LMLA는 정기적으로 디지털 콘텐츠 구입 업무를 진행하는 담당자들이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템플릿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MLA는 개별 대학도서관이 라이선시가 되는 경우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일반적인 디지털 콘텐츠 라이선싱 상

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상황이나 목적에 맞게 준거법이나 조항을 수정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2001년 4월 최초 개발된 버전에서는 26개에 달하는 항목과 항목별 세부 선택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약식 버전도 함께 제공되었다. 이후 2008년과 2014년에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2014년 11월부터 적용된 LMLA 5.0이 사용되고 있다. LMLA 5.0은 9개 항목과 항목별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고 NISO에서 SERU를 개발함에 따라 약식 버전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는다. 학술 출판 커뮤니티, 대학 도서관 사서, 대학의 계약 행정 관계자, 법률가 등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가 LMLA 모델의 개발 과정에 참여했으며, LibLicense에서 지속적인 전문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LIBLICENSE Project, 2015).

영국의 JISC(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에서는 온라인 저널의 등장에 대응하고자 1997년부터 국가 주도의 컨소시엄 이니셔티브인 NESLI를 운영하였으며, NESLI2는 NESLI의 후속 이니셔티브로 2003년 6월부터 시작되었다. NESLI2의 계약이 적용된 학술 출판사는 17개이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7,000개 이상의 온라인 저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계약을 위하여 JISC에 소속된 NESLI 운영위원회에서는 NESLI2의 협상 및 계약 과정에서 이용된 NESLI 표준 라이선스 모델(Model NESLI Site License)에 기초하여 NESLI2 계약모델을 개발하였다. 1999년 NESLI 운영위원회에서 처음 NESLI2 계약모델을 승인한 이후, 2001년 개별 기관에 의한 아카이빙 및 협력 아카이빙 조항 신설, 2007년 다크 아카이빙에 대한 수정, 2008년 다크 아카이빙 관련 조항 강화 등 아카이빙에 대한 조항을 개발 및 보완해 왔다(정영임, 김재훈, 김정환, 2010). 또한, 정보의 수집과 활용의 중요성이 향상되는 시류에 부합하도록 2007년 학술 단체의 연구 활동으로 인한 자료 배포와 학습 및 교육을 위한 전송 조항을 갱신하였다. 2009년에는 라이선스 자료의 텍스트 마이닝과 데이터 마이닝 허가를 위한 항목을 추가하고 출판사가 벤더에게 라이선스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정영임, 2023). 2023년부터 JISC에서는 데이터 보호 관련 사항을 강화하여 새로운 표준 라이선스를 도입하고 갱신되는 계약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새로운 표준 라이선스를 적용하고 있다. 실용적이고 유연한 약관으로 이루어진 JISC의 표준 라이선스는 JISC에서 진행되는 모든 계약의 기반이 되므로 JISC를 통해 다양한 자원을 구독하는 기관의 편리성을 제고하였으며, JISC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자체 라이선스 작성 과정에서도 템플릿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JISC, 2023a). 또한 Read and Publish 형태의 OA 전환계약을 위한 표준 라이선스를 별도로 마련하기도 하였다. Read and Publish를 위한 표준 라이선스에는 논문의 투고와 출판에 대한 표준화된 약관과 라이선스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며(JISC, 2023b), 실제 JISC를 통해 진행된 Read and Publish 계약의 라이선스는 ESAC 레지스트리에 게시되어 있다. 다만 JISC에서는 Publish and Read 유형을 위한 표준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JISC의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여 OA 전환계약 유형별 계약서 차이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CNSLP는 캐나다의 대학도서관과 협력하여 과학, 보건, 공학, 환경 분야의 전자저널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라이선스를 확보함으로써 캐나다 전역의 학술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이다(Hoffman, 2005). 1999년 후반 CFI(Canada Foundation for Innovation)와 캐나다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았으며, 2000년 1월에 시작되어 3년간 유지되는 동안 64개 대학이 해당 CNSLP에 참여하였다. 2000년 5월 전자자원 라이선스 계약을 위한 원칙을 인가한 후 CNSLP의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활용하였으며(David & Vinh-The, 2003), 2001년 2월 수정을 진행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이다. CNSLP는 주로 컨소시엄의 가격 책정과 관련된 정책에 집중하였으며, 현재에는 모든 회원 도서관의 영구적인 아카이빙 접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정영임, 2023). OA 전환계약을 위한 별도의 표준 라이선스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속적으로 OA 전환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계약서를 ESAC 레지스트리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CRKN, 2013).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표준계약서인 NESLI2, CNSLP 계약 모델과는 달리 SERU는 NISO(National Information Standards Organization)의 SERU working group에서 라이선스 계약서의 대안으로 선택 가능한 방안으로서 제시되었다(NISO, 2008). 2006년 10월, 다양한 규모와 종류의 도서관, 출판사, 컨소시엄 책임자, 구독 대행사, 법률가로 이루어진 SERU working group이 구성되어 SERU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SERU가 개발되었다. 미국 대학도서관과 학술 출판사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개발된 SERU는 초안을 개발한 후 사서와 출판사를 대상으로 6개월의 시험 사용 기간을 거치고 2008년 발간되었다(정영임, 2023). 사서와 출판사는 공동의 이해하에 SERU를 채택함으로써 라이선스 계약을 위해 협상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편리하고 합법적으로 전자자원을 거래할 수 있다. SERU에는 콘텐츠 제공자, 구독 기관 및 권한 있는 사용자, 콘텐츠의 성격, 자료의 사용 및 부적절한 사용, 개인정보 보호 및 기밀성, 온라인 서비스 제공, 아카이빙 및 영구 액세스 등에 대한 일반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SERU는 라이선스가 아니므로 법적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며, 구매 주문서 또는 구매 문서를 통해 가격, 제품, 접근 기간, 사용자 수, 가격 영향 요인과 같은 내용을 밝힘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을 권장한다. 라이선스 대신 SERU를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NISO SERU 웹사이트에 콘텐츠, 콘텐츠 제공자, 취득 기관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SERU 문구를 복사하여 사용하는 대신 SERU 문서의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현재 404개 도서관, 13개 컨소시엄, 240개 출판사가 SERU 프로젝트에 등록되어 있다(NISO, 2015).

교육 및 전문 학회 출판사 협회(Association of Learned and Professional Society Publishers, ALPSP)에서는 cOAlition S의 지원을 받아 도서관 컨소시엄과 소규모 독립 출판사 사이의 OA 전환 계약을 보조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다(Wise & Estelle, 2023). OA 전환계약을 위한 도구에서는 가격 원칙을 비롯한 OA 전환계약의 원칙을 명시하며, OA 전환계약 협상을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템플릿을 제공한다. 또한 Read and Publish와 S2O(Subscribe to Open Licence Agreement) 유형 등을 위한 샘플 계약서를 툴킷의 일환으로 제시하며, OA 전환계약의 이행을 위한 전반적인 절차(workflow framework)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다.

표준계약서 개발 외에도 OA 전환계약을 위한 툴킷을 제시함으로써 협상을 보조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는 2018-19년 Elsevier와의 OA 전환계약 경험을 기반으로 OA 전환계약 툴킷을 제안하였다(UC Publisher Strategy and Negotiation Task Force, 2019). 툴킷에서는 협상 목표 설정, 협상 전략 수립,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이행, 데이터 분석, 대체 자원 접근의 다섯 가지를 제안한다. 비용 절감과 OA 전환계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서관과 교원이 협력한 협상팀을 구성해야 하며,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해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전달하고 대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툴킷에서는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며, 콘텐츠 접근 권한이 상실될 경우를 대비한 대체 자원을 모색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2. 국내 컨소시엄 표준계약서 모형 개발 및 적용 연구

황옥경(2004)은 문헌 조사를 통해 해외 단일도서관의 라이선스 모형, 대형 벤더 공동 개발 모형, 비영리기관 모형, 도서관 컨소시엄 모형, 출판사 제시 모형의 대표 사례를 파악하고 이를 대상으로 모형 간 기본구조와 조항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전자저널 라이선스 계약 당사자인 국내 도서관과 대행사들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라이선스 조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문헌 조사 결과와 설문 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선스 계약모델의 기본구조와 주요 조항을 도출하였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8)은 수백여 참가 기관으로 구성된 대형 전자정보 컨소시엄인 KESLI (Korean E-resource Service for Library) 컨소시엄을 통해 체결되는 전자자원 라이선스 계약이 특정 시기에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라이선스마다 구성이나 세부 조항이 상이하여 참가 기관 사서들이 수십 건의 라이선스를 면밀히 검토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8)에서는 계약서에 대한 사서의 이해를 돕고 도서관과 이용자의 라이선스 권한을 보호하며 표준화된 항목으로 계약 과정을 합리화하고자 KESLI 컨소시엄 표준 계약서 영문 모형을 개발하고, 2009년에 한국어 번역본을 완성하였다.

정영임, 김재훈, 김정환(2010)은 Bebbington(2001)이 정의한 전자자원 라이선스 계약을 구성하고 있는 10개 핵심 요소를 기준으로 해외에서 통용 중인 전자정보 라이선스 모델과 KESLI 컨소시엄 표준계약서 모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각 계약서의 기본구조와 세부 항목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KESLI 모형이 타 라이선스 모형과 전반적으로 유사하여 해외 출판사와의 전자정보 라이선싱

계약 체결에 적용 가능성을 밝혔다. 이후 정영임(2023)에서는 KESLI 컨소시엄 표준계약서의 개발 경위를 설명하고 컨소시엄 참여 출판사를 대상으로 KESLI 컨소시엄 표준계약서 영문 모형과 한국어 번역본 채택 가능 여부 조사하였으며, 출판사의 수정 요청 수용을 통한 KESLI 컨소시엄 표준계약서 1.0을 실적용한 사례를 기술하였다. 또한, OA 전환계약이 확산되고 라이선스 계약 유형도 다양화됨에 따라 변화된 학술 환경에서 이용자이자 저자인 연구자의 요구에 대응하고 연구기관과 연구자 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OA 전환계약서 분석과 표준 조항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KCUE(Korea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컨소시엄에서도 국내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컨소시엄 국문 표준계약서를 개발한 바 있으나(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3), 해당 모형의 영문본과 해외 정보공급사를 대상으로 한 계약서가 개발되지 않아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3. OA 전환 계약서 기본구조 및 조항 분석 연구

OA 전환계약은 도서관의 주도하에 학술출판 생태계를 OA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가 및 도서관 컨소시엄, 개별 도서관 등이 출판사와의 학술지 구독 계약을 OA 출판 계약으로 전환하는 계약이다(Hinchliffe, 2019). OA 전환계약 방식에서는 기존의 학술지 열람(reading) 권한은 유지하면서 소속 기관 연구자의 OA 출판 비용을 도서관에서 지원한다. OA 전환계약을 체결할 경우, 저자가 논문을 하이브리드 저널에 OA로 출판하고자 할 때 출판사에서 부과하는 OA 논문 출판 비용(APC: article process charge)을 논문 건당 정가 비용이 아닌 국가, 컨소시엄 또는 기관 단위 비용으로 관리하며, 구독료와 통합되어 단일 계약으로 처리된다. 또한, 기존에는 저자만 논문 출판 프로세스에 개별적으로 참여한 것과 달리, 컨소시엄 또는 기관에서 소속 연구자의 OA 출판 적격성을 계약 조항에 따라 판단하고 OA 출판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한다.

도서관 주도의 표준적인 OA 출판 워크플로우 정립을 위한 협력 이니셔티브인 ESAC의 가이드라인에서는 OA 전환계약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OA로 출판한 논문의 저작권은 출판사에 양도하지 않고 저자가 보유하며 CC 라이선스²⁾를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ESAC Initiative, 2015). 이에 전 세계 많은 컨소시엄 및 도서관에서는 출판사와 OA 전환계약을 체결할 때 ESAC 권고안에 따라 관련 OA 전환계약서 조항을 구성하고 있다. 기존 전자정보 라이선스 표준 모형 개발을 주도해 온 LIBLICENSE 그룹 및 포럼에서도 최근 계약서 조항 내 이슈가 되는 사항을 논의하고 표준적인 문구로 제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국제도서관컨소시엄연맹(International Coalition of Library Consortia, ICOLC)에서도 “(전자정보) 라이선싱에서 AI 관련 ICOLC 선언문(2024.03.22.)”을 통해 라이선스 계약서 내 AI 관련 문구 권고안을 도출하였다(ICOLC, 2024). 그러나 OA 전환계약서 기본구조 및 조항 분석 관련 연구는 매우 드물며, 표준 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도 미비한 상황이다.

2) <http://ccl.cckorea.org/about/>

Ⅲ. OA 전환 계약 체결 및 공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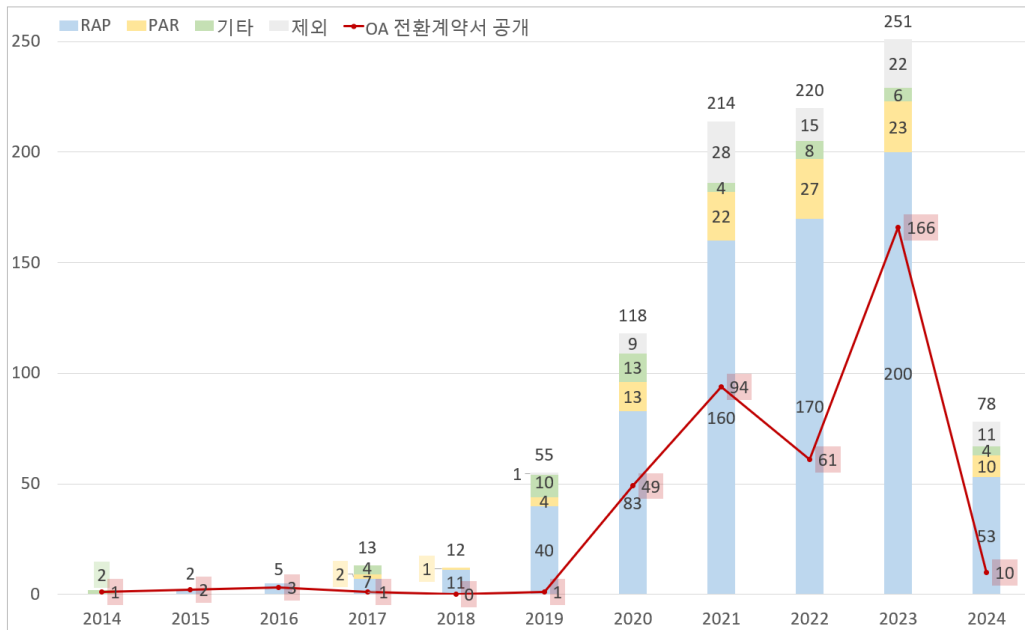
OA 전환계약서 분석을 위한 사전 조사로 전 세계의 OA 전환계약 현황과 OA 전환계약서 공개 현황을 확인하였다. 전 세계 OA 전환계약 체결 및 계약서 공개 현황과 OA 전환계약 유형은 ESAC 레지스트리(ESAC Initiative, 2014)에 등록된 OA 전환계약 정보와 공개된 계약서에 명시된 정보를 통해 확인하였으며(2024.02.16. 기준), KESLI 컨소시엄 시스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5) 내 등록된 정보와 ACE KERIS 대학라이선스 웹사이트(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 내 공개된 정보를 조사함으로써 국내 OA 전환계약 체결 건수와 유형, 국내 유통 컨소시엄을 파악하였다.

1. 전 세계 OA 전환계약 체결 및 계약서 공개 현황

〈그림 1〉은 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체결된 OA 전환계약과 유형, OA 전환계약서 공개 건수의 시계열 추이를 조사한 것이다. 다만 2024년의 경우 아직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이 존재하므로, 향후 2024년 OA 전환계약 수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년간 체결된 OA 전환계약은 ESAC 레지스트리를 통해 공개된 계약 954건과 ESAC 레지스트리에 등록되지 않았으나 국내 대학 및 컨소시엄에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16건의 계약을 합하여 총 970건이다. 이 중 388건(40.00%)이 계약서를 공개하고 있거나 공개할 예정인 상태이다. OA 전환계약이 진행된 초기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소수의 전환계약만 체결되었으나, 2018년 베를린 OA 컨퍼런스에서 OA 전환계약이 소개된 후 2019년에는 전년도의 4.5배가 넘는 55건의 OA 전환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2020년에 118건, 2021년에 215건의 전환계약이 체결되면서 OA 전환계약이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증가 폭은 감소하였지만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다. 체결되는 OA 전환계약 수 자체가 많지 않던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OA 전환계약서의 공개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OA 전환계약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2019년도부터 OA 전환계약서 공개 비율이 감소하였고, 2022년에 27.60%까지 감소하였다가 2023년에는 다시금 증가하며 당해 OA 전환계약의 66.14%에 달하는 166건의 계약서가 공개되었다.

OA 전환계약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구독료 기반 OA 전환계약(Read and Publish, RAP)”과 “출판비 기반 OA 전환계약(Publish and Read, PAR)”이 대표적이다. RAP 유형은 OA 전환계약의 총비용을 기존 구독료에 기반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며, PAR 유형에서는 모든 또는 대부분의 비용이 OA 논문 출판량을 기준으로 산출되고 계약의 혜택으로 구독 논문에 대한 열람 및 영구 접근 권한이 포함되게 된다. 그 외 Offsetting, S2O를 비롯한 기타 유형의 계약이 존재하나, 현재 주요 출판사에서는 PAR과 RAP 유형의 OA 전환계약을 주로 체결하고 있다(정영임 외, 2024). OA 전환계약 유형별 현황을 분석하고자 공개된 OA 전환계약서와 ESAC 레지스

트리에 등록된 정보를 조사하였으며, 유형 파악이 불가능한 86건을 제외한 884건의 OA 유형을 분류하였다. 전체 OA 전환계약 중 RAP 유형이 731건(75.36%)으로 가장 많았고, PAR 유형도 102건(10.52%) 존재했다. 그 외 기타 유형은 51건(5.26%)으로 소수만 차지했다. 2014년 처음 체결된 두 건의 OA 전환계약은 모두 Offsetting 방식이었으나, OA 전환계약의 활성화가 시작된 2019년부터 Offsetting 방식을 비롯한 기타 유형은 매년 15건 미만이며 전체 OA 전환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감소하고 있다. RAP 유형은 2015년 처음 2건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20년 83건(70.34%), 2021년 160건(74.42%)이 체결되며 급증하였고 2022년 170건(76.92%), 2023년 200건(79.68%)으로 체결 수와 비율 모두 증가하였다. 2017년 처음 2건의 계약이 체결된 PAR 유형은 등락을 반복하면서도 조금씩 체결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RAP 유형과 PAR 유형의 OA 전환계약서 공개 비율은 각각 44.32%(324건), 43.14%(44건)로 두 유형 간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기타 유형의 경우 25.49%(13건)의 OA 전환계약만 계약서를 공개하고 있었다.



〈그림 1〉 OA 전환계약 체결 및 계약서 공개 추이

〈표 1〉은 OA 전환계약 수와 OA 전환계약서 공개 비율을 대륙별로 구분하여 명시한 것이다.³⁾ OA 전환계약이 이루어진 75개 국가가 속한 대륙은 유럽, 북미, 중남미, 대양주, 중동, 아시아,

3) KOTRA의 '국가지역정보'에 근거하여 국가의 대륙 구분을 진행함.

아프리카로 다양했으며, OA 전환계약 수와 OA 전환계약서 공개 비율에서 대륙별 차이가 나타났다. OA 전환계약 수가 가장 많은 대륙은 유럽으로 724건이었으며, 계약서를 공개하는 비율도 49.7%로 가장 높았다. 89건의 OA 전환계약을 체결한 북미가 뒤를 이었으며, 계약서 공개 비율 또한 22.5%로 대륙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중동과 대양주가 각 40건, 아시아가 37건으로 OA 전환계약 체결 수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중동과 대양주는 1건의 OA 전환계약서 공개 사례가 존재하는 반면 아시아에서 계약서를 공개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12건, 중남미 대륙에서 5건으로 소수의 OA 전환계약만 체결되었고 두 대륙 모두 계약서를 공개한 사례는 없었다. 여러 국가가 연합하여 체결한 OA 전환계약 사례도 7건 존재하며, 6건(85.7%)이 계약서까지 공개하였다.

〈표 1〉 대륙별 OA 전환계약 수 및 OA 전환계약서 공개 비율

대륙 구분	전체 OA 전환계약	계약서 공개 (비율)	계약서 비공개 (비율)
유럽	724	360 (49.72%)	364 (50.28%)
북아메리카	89	20 (22.47%)	69 (77.53%)
아시아	53	0 (0.00%)	53 (100.00%)
오세아니아	40	1 (2.50%)	39 (97.50%)
중동	40	1 (2.50%)	39 (97.50%)
아프리카	12	0 (0.00%)	12 (100.00%)
남아메리카	5	0 (0.00%)	5 (100.00%)
복합 국가	7	6 (85.71%)	1 (14.29%)
전체	970	388 (40.00%)	582 (60.00%)

2. 출판사별 OA 전환계약 체결 현황

〈표 2〉는 전 세계 OA 전환계약 체결 현황과 OA 전환계약서의 공개 현황을 출판사별로 정리하고, OA 전환계약과 구독 계약을 모두 포함하여 국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컨소시엄을 조사한 것이다. 75개 국가에 소속된 185개 기관 혹은 컨소시엄에서 62개의 출판사와 OA 전환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서를 공개한 OA 전환계약을 기준으로 16개 국가에 소속된 19개 기관, 43개 출판사가 해당된다. 계약서를 공개하는 비율은 전체 OA 전환계약의 40.00%인데 반해 전체 중 21.33% 국가와 10.27%의 기관(컨소시엄)만이 OA 전환계약서를 공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에서는 19건의 OA 전환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대부분의 계약이 KESLI, KCUE, KERIS 등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개별 대학에서의 체결도 2건 존재한다. 전 세계에서 OA 전환계약을 체결한 62개 출판사 중 국내 컨소시엄에서 1회 이상 품목을 제안한 이력이 있는 출판사는 41개로 약 65.08%에 해당한다. 그러나 41개 출판사 중 국내에서도 전환계약을 맺은 출판사는 10개뿐이다.

〈표 2〉 출판사별 OA 전환계약 체결 현황 및 국내 유통 컨소시엄 계약 현황

출판사명	OA 전환계약 체결 건수		OA 전환계약서 공개 건수		구독 계약 및 OA 전환계약 국내 유통 컨소시엄		
	국외	국내	국외	국내	KESLI	KCUE	KERIS
AIP Publishing	25	0	10	0	△	△	
Akadémiai Kiadó	3	0	3	0			
American Chemical Society	44	0	15	0	△	△	
American Meteorological Society	1	0	1	0			
American Physical Society	6	0	3	0	△	△	△
American Physiological Society	3	0	3	0	△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3	0	3	0			△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1	2	0	0	○	○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36	1	12	0			○
Bentham Science Publishers	2	0	2	0	△	△	△
Bioscientifica	4	0	2	0			
BMJ Publishing	12	0	7	0	△		
Brill	12	0	8	0	△	△	△
Bristol University Press	2	0	2	0			
Cambridge University Press	69	2	21	0	○	△	△
Canadian Science Publishing	2	0	1	0	△		
Cogitatio Press	2	0	0	0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Press	9	0	2	0	△		
Company of Biologists	56	2	9	0	○	○	
CSIRO	2	0	0	0	△		
EDP Sciences	5	0	2	0			
Edward Elgar Publishing	1	0	1	0			
Elsevier	33	1	18	0	○	△	△
Emerald	17	0	9	0	△	△	△
European Respiratory Society	6	0	5	0			
Future Science Group	10	0	4	0	△		
Hogrefe	3	0	3	0			
IEEE	20	0	11	0	△	△	△
IGI Global	1	0	0	0	△		
Inter-Research Science Publisher	1	0	0	0			
IOP Publishing	54	0	16	0	△	△	△
IOS Press	3	0	3	0	△	△	
IWA Publishing	7	0	6	0	△		
John Benjamins Publishing	26	0	2	0			
Karger	17	2	10	0	○	○	△
MA Healthcare	2	0	0	0			
Mary Ann Liebert, Inc.	1	0	0	0	△	△	
Microbiology Society	25	0	7	0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3	0	1	0	△	△	△
Optica	3	0	3	0	△	△	
Oxford University Press	39	0	19	0	△		△
Portland Press	23	0	7	0			
Radiological Society of North America	4	0	2	0			
Rockefeller University Press	20	0	5	0	△	△	
Royal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	2	0	2	0			

출판사명	OA 전환계약 체결 건수		OA 전환계약서 공개 건수		구독 계약 및 OA 전환계약 국내 유통 권소시업		
	국외	국내	국외	국내	KESLI	KCUE	KERIS
Royal Irish Academy	3	0	3	0			
Royal Society of Chemistry	47	2	20	0	○	○	
Sage	31	0	17	0	△	△	
Society for Neuroscience	2	0	2	0			
SPIE	12	2	0	0	○	○	△
Springer Nature	43	2	23	0	△		
Taylor & Francis	44	0	15	0	△	△	△
The Electrochemical Society	7	0	0	0			
The Geological Society of London	10	0	3	0	△		
The Royal Society	38	0	8	0	△		
Thieme	6	0	3	0	△	△	
Trans Tech Publications	1	0	0	0			
Walter de Gruyter	29	1	17	0	△	△	○
White Horse Press	1	0	0	0			
Wiley	43	2	24	0	○	△	○
Wolters Kluwer Health	12	0	11	0			△
World Scientific	2	0	2	0	△	△	△
합계	951	19	388	0	38	27	19
총계	970		388		84		

* ESAC Transformative Agreement Registry 2024.02.16. 업데이트 기준

** NST의 OA 전환계약은 KESLI의 국내 유통 권소시업으로 포함함

*** △: 국내 유통 권소시업 계약이 구독계약에만 해당할 경우

○: 국내 유통 권소시업 계약이 OA 전환계약을 포함할 경우

OA 전환계약 추이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국가와 출판사에서 OA 전환계약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OA 전환계약 체결 수도 몇 차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세계적으로 OA 전환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OA 전환계약서의 공개량과 비율은 아직 등락이 존재하고 OA 전환 계약서를 공개한 국가는 유럽과 북미 대륙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OA 전환계약서의 공개가 보편화 되었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OA 전환계약서의 비공개는 투명한 OA 전환계약의 확산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OA 전환계약서의 공개가 유럽과 북미 외 전 세계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IV. 구독 라이선스 계약서와 OA 전환계약서 비교 분석

2장에 기술된 바와 같이, 현재 OA 전환계약 라이선스 표준 모형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 권소시업과 도서관에서는 출판사가 제시한 계약서를 다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lsevier 출판사와의 OA 전환계약 체결에 활용한 출판사 개발 계약서를 기존 구독 계약서와 비교하여 계약 종류에 따른 계약서 기본구조 및 세부 조항을 분석하고, 계약서 간 차이

점을 중심으로 OA 전환계약에서 새로 부각된 쟁점 조항을 살펴보았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보의 접근 및 이용 권한에 대한 구독 계약은 단일한 방식인 반면 OA 전환계약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대표적인 유형인 RAP와 PAR 유형의 계약서를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 대상으로 삼은 계약서는 <표 3>과 같다.

<표 3> 계약 종류별 분석 대상 계약서

구독 계약서	Elsevier에서 KESLI 컨소시엄 ScienceDirect2024 품목 제안 시 제출한 계약서 샘플	
OA 전환계약서	PAR 유형	2023년 9월 체결한 독일 DEAL-Elsevier PAR 계약서
	RAP 유형	2024년 2월 체결한 NST-Elsevier RAP 계약서

1. 계약서 간 기본 구조 비교 분석

구독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은 통상 구독 기관과 출판사 간 기밀유지 사항에 속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독 계약의 경우 계약서 샘플을 참조로 구독 계약서의 구조와 세부 내용을 파악하였다. 3.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A 전환계약서 공개가 증가함에 따라 ESAC을 통해 공개된 Elsevier OA 전환계약서를 입수하여 계약 종류별 기본 구조의 차이를 <표 4>와 같이 분석하였다.

<표 4> 계약 유형별 계약서 구조 및 세부 조항

주요 조항	세부 조항	구독	RAP	PAR
(1) 전문		X	X	●
(2) (구독) 제품	(2.1) (구독) 서비스 대상 제품 설명	O	O	O
	(2.2) 인증된 이용자 및 장소	△	△	△
	(2.3) 인증된 이용	O	O	O
	(2.4) (구독) 제품에 대한 이용 제한	O	▲	▲
	(2.5) 지식재산권 소유	X	▲	▲
	(2.6) 오픈엑세스	X	●	X
(3) 엘스비어의 의무	(3.1) 제품에 대한 액세스 제공	O	O	O
	(3.2) 서비스 질 보장	O	O	O
	(3.3) 콘텐츠 제공 철회 권리 보유	O	O	O
	(3.4) 이용통계 리포트 제공	O	O	O
(4) 구독/참여 기관의 의무	(4.1) 인증 및 원격접속 제한 허용	O	△	△
	(4.2) 인증되지 않은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보호	O	O	O
	(4.3) 보안 요구사항	X	O	O
(5) 대금과 지불	(5.1) 대금 지불	O	△	▲
	(5.2) 구독료 총액 유지 약정	X	O	X
(6) 기간	(6.1) 기간	O	△	O
	(6.2) 갱신	O	X	O
	(6.3) 조기 해지	X	X	O
	(6.4) 해지	X	△	X
	(6.5) 일시적 접근 중단	X	X	O

주요 조항	세부 조항	구독	RAP	PAR
(7) 엘스비어 보증과 면책	(7.1) 보증	0	0	0
	(7.2) 면책	0	0	0
	(7.3) 고지	0	0	0
	(7.4) 책임의 제한	0	0	0
(8) 일반 원칙	(8.1) 불가항력	0	0	0
	(8.2) 분리가능성	0	0	0
	(8.3) 이전 또는 타계약서를 본 계약서로 대체 및 우선 적용	0	0	0
	(8.4) 계약 당사자간 서명하지 않은 계약 조항의 수정, 포기의 비유효성	0	0	0
	(8.5) 본 계약의 권리나 의무 양도 불가능	0	0	0
	(8.6) 개인정보 및 개인 데이터 처리 규정(엘스비어 DPA, GDPR) 준수	0	△	△
	(8.7) 계약 통지	0	0	0
	(8.8) 계약 기밀 정보 유지	0	▲	X
	(8.9) 계약 관련 쌍방의 의무에 적용되는 모든 법 및 규정 준수	X	△	△
	(8.10) 전자 서명의 효력	0	0	0
	(8.11) 준거법 및 관할 법령	X	X	0
	(8.12) 계약 체결 기관	X	0	0
	(8.13) 계약 체결의 공개적 보도에 동의	X	X	●
부록	부록 1: (구독) 제품/접근/비용	0	0	▲
	부록 1.1: 구독(열람) 저널 컬렉션, 타이틀, 해지 후 접근 가능 타이틀	0	0	▲
	부록 1.2: 다크 아카이브	X	X	0
	부록 1.3: 엘스비어 저널 백과일 제안	X	X	0
	부록 2: 장소/인증/연락처	0	0	X
	부록 3: 인증된 계약서/계약서 양식	X	X	▲
	부록 4: 오픈엑세스 조건, 출판 적격 저널	X	●	●

* 0: 해당 항목 존재, ●: OA 특수 항목 존재, △: 항목 존재하나, 내용 상이, ▲: 항목 존재하나 OA 관련 상이, X: 해당 항목 부재

저널 라이선스 계약과 구독료 기반 OA 전환계약(RAP)은 저널 콘텐츠의 이용과 관련된 계약이므로 계약서 간 기본 구조는 거의 동일하다. 출판비 기반 OA 전환계약서는 출판사에 따라 기존 구독 계약서와 기본 구조부터 다른 경우도 있으나, 독일 DEAL 컨소시엄과 Elsevier 간 출판비 기반 OA 전환계약서는 기존 구독 계약서와 기본 구조는 거의 동일하되 주요 조항 및 부록에 OA 출판 관련 세부조항이 추가되었다. 또한 출판비 기반 OA 전환계약 체결 경위가 기술된 전문이 추가된 구조이다. 계약 유형에 따른 계약서 세부 조항의 유무와 내용 차이를 분석한 결과 OA 전환계약과 무관하나 계약서 간 상이한 세부 조항(△, X)은 15건이며, OA 출판 권한 및 전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 간 상이한 세부 조항(●, ▲)은 11건에 달한다.

2. 계약서 간 OA 전환계약 무관한 상이 조항

OA 전환계약과 무관하나 Elsevier ScienceDirect 품목의 구독 계약서 및 RAP, PAR 계약서 간 상이한 세부 조항을 분석한 결과, 여섯 가지로 범주화되었다. 여섯 가지 범주는 아래와 같으며, 범주별 명칭 옆에 <표 4>에 명시된 세부 조항별 번호를 병기함으로써 해당하는 조항을 표시하였다.

- **인증된 이용자의 원격접속 허용** (2.2, 4.1, 4.3): 독일 DEAL-Elsevier 간 PAR 계약은 국가 차원 계약이므로 타 유형의 계약서 대비 제품에 원격 접근할 수 있는 인증된 이용자 및 장소의 범위가 광범위함. 광범위한 인증된 이용자 및 장소로부터 제품 콘텐츠의 기밀성 또는 보안 유지를 위한 문서화된 정책 및 사후 절차 관련 조항이 추가됨.
- **총액 유지** (5.2): 기존 구독 계약서는 단일 기관과 Elsevier 간 계약서이므로 총액 유지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NST-Elsevier 간 체결된 RAP 계약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all-in 조건으로 총액 유지가 약정되나, DEAL-Elsevier 간 체결된 PAR 계약은 opt-in 조건으로 국가 컨소시엄이나 모든 고등교육 및 연구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총액 유지 조항도 존재하지 않음.
- **계약 기간** (6.1~6.5): 관련 내용은 유사하나 자동 갱신 여부, 계약 조기 해지 여부를 명시하는가에 따라 미미한 내용상 차이가 발생함(6.1~6.4). DEAL 컨소시엄 참여기관에 인보이스가 발급되고 계약금이 통지된 이후에도 해당 참여기관의 계약금 납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DEAL 운영조직은 해당 참여기관으로부터 이용 약관에 따른 모든 권한을 철회할 권리를 보유함(6.5).
- **개인정보 및 개인 데이터 처리** (8.6): 구독 계약서와 RAP 계약서에 반해 DEAL 컨소시엄의 PAR 계약서에는 개인정보 및 데이터 처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6개 세부조항으로 추가로 포함되었고, 엘스비어 개인정보 보호정책⁴⁾ 및 엘스비어 데이터 처리 부록⁵⁾에 따라 개인 데이터가 처리됨을 명시함. 쌍방이 개인정보 공동 관리를 할 경우 GDPR에 따른 법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과 데이터 추가 처리 및 보호를 위한 협조할 것과 엘스비어는 사전 동의없이 인증된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생성, 추적, 기록, 저장, 공유, 전송, 판매⁶⁾하지 않음을 약정함.
- **준거법 및 관할 법령** (8.9, 8.11): 구독 계약서에는 준거법 관련 조항이 없으며 RAP 전환계약서에는 특정 준거법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 관련 쌍방의 의무에 관련되는 모든 법 및 규정으로 표현하고 쌍방이 관련 규정 준수해야 함을 명시함(8.9). PAR 계약서에는 준거법을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으로 관할 법령을 독일 뮌헨법원으로 명기함(8.11).
- **기타** (부록 1.2, 부록 1.3): DEAL-Elsevier 간 PAR 계약에는 트리거 이벤트(재난 및 Elsevier 파산 등으로 인한 콘텐츠 접근 불가 상황 등)에 대비하여 다크 아카이브 대상 콘텐츠, 관리

4) <https://www.elsevier.com/legal/privacy-policy>

5) <https://www.elsevier.com/legal/data-processing-terms>

6) Thomson Reuters사와 Elsevier 모회사인 RELX사가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자사 플랫폼에 수집된 개인 정보 및 데이터를 판매한 행위가 밝혀진 후 UCLA를 비롯한 대학으로부터 법적 소송이 제기됨. 독일연구재단은 학술출판사의 플랫폼에 축적된 개인 정보가 어떻게 추적되고 가공(마이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등교육 및 연구기관, 연구자에게 학술출판사와 계약 시 개인정보 처리 및 활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음(DFG, 2020). 독일 DEAL 컨소시엄 운영조직인 MPDL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계약서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책임 주체, 트리거 이벤트를 정의하고 대상 콘텐츠 제공 방식, 다크 아카이브 호스팅 및 접근 제공 라이선스 부여 및 보안 규정을 상세하게 기술함(부록 1.2). 또한 엘스비어 저널 백파일 제안 내용을 부록 1.3에 포함하였으나 이는 추가 서비스에 대한 제안 내용이므로 타 유형의 계약서 및 타출판사와의 계약서에도 거의 포함되지 않는 특수한 내용임.

3. OA 전환계약 여부 및 유형에 따라 상이한 조항

OA 전환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 간 내용이 상이한 11개 세부 조항을 분석하였다. 하나의 조항에서 다양한 차이점이 발견되는 경우 복수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조항의 상이한 내용에 대한 범주화를 진행하였다.

- **(구독) 제품** (2.1~2.6): 구독 계약과 RAP 계약서에서는 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콘텐츠와 서비스 일체를 '구독 제품'으로 표기한 반면, PAR 계약서에는 '제품'으로만 표기함. 마찬가지로 PAR 계약서 전문에 구독 관련 용어는 삭제되거나 대체됨(2.1~2.6). RAP에는 제품 중 OA 출판된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저자에게 귀속, OA 콘텐츠의 재사용 수준 역시 저자의 선택 사항임(2.5). 제품 내 OA 출판 관련 조항은 별개임을 간략 서술(2.6).
- **대금과 지불** (5.1): 콘텐츠 접근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근거로 대금이 청구되는 구독 계약과 달리, 전환계약서에는 확보한 OA출판 권한에 따른 출판 서비스 대금 관련 조항이 포함됨.
- **계약 기밀 정보 유지** (8.8): 구독 계약은 계약 양자 간 모든 내용이 기밀로 유지되고 공개되면 안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OA 전환계약은 OA2020, cOAlition S 등에서 강조하는 계약의 투명성 제고 원칙에 따라 대다수의 OA 전환계약 내용을 ESAC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 RAP의 경우 대금 관련 조항(financial term)만 비공개로 하였으나 국내 체결된 구독 계약과 OA 전환계약을 통틀어 최초로 라이선스 계약서 공개를 계약서 조항에 포함함.
- **계약 체결 내용의 공개적 보도** (8.13): PAR 계약은 더 나아가 계약 체결 내용의 공개적 언론 보도에도 협력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높은 수준의 계약 투명성 협조를 끌어 냄.
- **부록 내 OA 관련 조항** (부록 1, 부록 1.1): Elsevier의 RAP, PAR 계약서는 OA 출판 관련 조항을 부록에 별도 정리함. 제품 정의/접근/비용 (부록 1), 구독(열람) 권한이 확보된 저널 타이틀 리스트, 계약 해지 후 접근 가능(Post Cancellation Access) 타이틀을 나열함(부록 1.1).
- **적격 기관, 참여 기관** (부록 1, 부록 4): 국가 차원의 출판비 기반 OA 전환계약을 체결한 독일 DEAL 컨소시엄에서는 독일 내 해당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기관, 즉 적격 기관을 독일에 위치한 대학 및 연구기관, 국립 및 주립 도서관, 중앙 주제 도서관, 연구 및 전문학술도서관, 독일 연방 정부 또는 주정부 지원 연구 및 학술기관 그리고 쌍방이 합의한

기타 기관 등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함. 적격 기관이 서명된 엘스비어 이용 약관을 제공하고 사이트 식별 및 인증 방법을 처리한 후 본 계약서 부록에 참여기관으로 추가됨. 계약 기간 내 언제라도 적격 기관 중 새로운 참여 기관의 계약 참여가 가능하므로, 해당 기관이 본 계약서 내 참여 기관 목록에 추가된 개정일(“개정 발효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엘스비어의 출판 서비스가 개시되며, 개정일 이후에 적격 저널에 게재가 승인된 논문만 개정 발효일의 적용을 받는다는 데 동의함. 계약의 참여 기관이 미리 정의되고 계약 기간 내 참가 기관의 변동이 허용되지 않거나 거의 발생하지 않는 구독 계약 또는 RAP 계약과 매우 상이함.

- **적격 저자** (부록 4): RAP, PAR 계약서에서 참여 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참여 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참여 기관에 인가된 학생 또는 참여 기관에 고용되거나 기타 방식으로 인가된 교육, 연구 또는 기타 직원이며 출판을 위해 원고를 제출하는 교신저자를 “제출 교신저자”라고 함. 자격의 목적상, 교신저자는 논문 제출부터 수락 후까지 논문의 출판 과정을 관리하는 단일 저자임. 출판 워크플로우에서 논문을 투고하는 교신저자는 자신이 소속된 참여 기관명과 관련 연구 자금 출처를 명시해야 함. 이 정보를 기반으로 엘스비어는 해당 교신저자의 적격 여부를 판별하고 계약에 따른 출판 옵션을 제공함. 적격 저자는 논문을 OA 또는 구독 모델로 출판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짐. 적격 저자의 소속이 여러 곳인 경우, 실제 작업이 수행된 소속이 우선함.
- **적격 저널** (부록 4): RAP, PAR 계약에 의해 OA 출판을 허용되는 저널임. 대상 저널은 세부 계약 범위에 따라 다름. NST RAP 계약은 Elsevier 핵심 하이브리드 저널이 적격 저널이며, DEAL의 PAR 계약은 Elsevier 핵심 하이브리드 저널뿐만 아니라 골드 OA 저널, 셀프프레스, 랜트 하이브리드 및 골드 OA 저널을 포함함.
- **적격 논문** (부록 4): OA 전환계약의 혜택, 즉 본 계약에 의해 OA 출판을 가능한 논문은 교신저자가 제출한 논문이 해당 계약 기간 내 적격 저널에 의해 게재 승인된 논문임.
- **OA 출판 논문 건수** (부록 4): RAP 계약은 저널 접근 권한 확보를 중점으로 하되 협상에 따라 적격 저널에 OA 출판을 가능한 논문 건수를 일정량 또는 무제한 확보하는 데 반해 PAR 계약은 적격 저널에 무제한 OA 출판을 가능한 권한을 계약을 통해 확보함.
- **OA 출판 비용 및 계약 총액** (부록 4): RAP 계약은 기존 구독료 수준에서 OA 출판 논문 권한을 추가로 확보하였기에 계약서 내 논문 건당 OA 출판 비용에 대한 기술이 없고 계약 총액만 포함됨. 그러나 PAR 계약은 적격 기관의 기존 출판 논문 건수를 고려하여 하이브리드 저널에 논문 건당 OA 출판 비용을 PAR 비용(PAR fee)으로 명시하고, Gold OA 저널의 APC 정가 대비 얼마 정도 할인율을 받아 OA 출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시함. 즉, 계약 이후 적격 저널에 OA 출판한 논문 건수에 따라 총 비용이 정해지고 후 정산됨.
- **구독 출판 논문의 OA 출판 소급 적용 여부** (부록 4): PAR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내 쌍방의 서명 전까지 OA 출판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 연도 중 언제든지 가입하는 참여 기관은 제출한

해당 논문의 라이선스를 소급하여 변경할 수 있음. 해당 연도의 1월 1일과 개정 효력 발생일 사이에 구독 모델에 따라 출판된 논문을 소급하여 OA 논문으로 변경할 수 있음. RAP는 계약 기간 내 OA 출판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 구독 모델에 따라 출판된 논문을 적격 저자와 적격 기관의 선택에 따라 OA 논문으로 소급 적용 가능함.

- **CC 라이선스** (부록 4): 적격 저자가 OA 옵션을 선택한 경우, 저널 논문은 저자가 결정한 대로 CC BY 또는 CC BY-NC-ND 라이선스에 따라 자동으로 출판됨.
- **저자 저작권 보유** (부록 4): 교신저자가 정한 조건 및 절차에 따라 해당 논문의 저자가 저작권을 보유하며(특정 학회지의 경우 제외), 본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및 절차에 따름.

4. OA 전환 시대 새로운 쟁점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전 세계 도서관과 도서관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OA 전환계약 체결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국내 도서관 현장에서 OA 전환계약이라는 새로운 현상에 직면하여 OA 전환계약서 조항 구성 관련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각 쟁점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계약서에 들어갈 조항을 어떻게 구성해야 기관과 기관 소속 연구자에게 더 유리한 계약이 될 수 있는지, 나아가 OA 기반 학술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OA 전환계약서 내 조항에 국한하지 않고 OA 전환계약 체결에서 이행까지의 과정상 비일관적이거나 불리한 사안이 없는지 관련된 쟁점을 보다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OA 전환 시대에 OA 전환계약서 관련 쟁점 사안을 살펴본다.

가. AI 활용 금지 조항과 OA 콘텐츠 공정 이용 쟁점 재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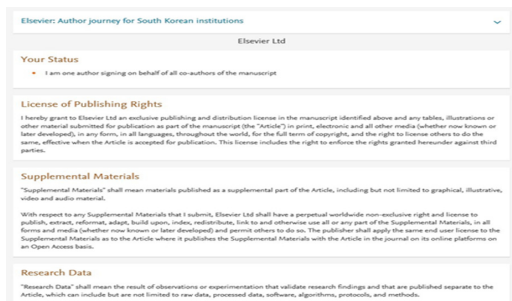
논문 콘텐츠를 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출판사에서는 논문 콘텐츠의 AI 활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ICOLC, 2024). AI 활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OA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공정 이용에 연계되는 이슈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을 통해 관련 해외 동향을 확인하고 AI 활용 제한 조항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조사하였다. 논문 콘텐츠를 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는 이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 판단하고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이하 TDM)을 위한 저작물 복제를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하는 'TDM 예외(TDM exception)'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로 확산되는 가운데(정영임, 2021; Sandiumenge, 2023), AI 학습데이터 구축이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은 TDM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AI 학습데이터로의 활용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공정이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류시원, 2024; Sag, 2023). 한편, 비영리 교육 혹은 연구 목적으로 논문 콘텐츠를 AI에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은 도서관과 기관의 자금 부담을 증대시키고 AI 연구

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Clifford et al., 2023; Rachael, Timothy, & Samantha, 2024). Rachael(2023)은 출판사가 논문 라이선스 계약에서 AI 활용을 제한한 후, 개별 도서관에 AI 활용을 위한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별도의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인 장벽은 불충분한 데이터 확보로 인한 AI 모델의 기능 저하, 연구 주제 제한, 연구 자금 보유 수준에 따른 편향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AI 연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AI 학습데이터 활용을 고려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법률이나 정책이 수립되지 못한 상황이다(류시원, 2024). AI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과 규제가 마련되기까지 계약서 내 논문 콘텐츠의 AI 활용 금지 조항을 거부하고 AI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OA 전환계약서와 OA 출판계약서 간 비밀관성

구독 계약은 기관에서 소속기관 연구자들이 출판사와 어떤 계약을 맺는지 관여하지 않지만, OA 전환계약은 도서관(또는 컨소시엄)과 출판사 간 체결되는 계약으로 도서관이 소속기관 연구자 논문의 OA 출판 권한을 확보하여 출판 서비스와 워크플로우를 지원한다.

개별 연구자들은 본인의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 후 해당 논문이 게재 승인된 시점에 통상적으로 출판사가 제시하는 “저작권 양도”에 서면 동의하는 것으로 저자와 출판사 간 출판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저자가 OA 출판 워크플로우 플랫폼에서 직면하는 저자 동의서 또는 출판 계약서에 도서관이 체결한 OA 전환계약서 내 조항과 비밀관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OA 전환계약서에는 해당 계약의 결과로 OA 출판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가 소유하고, 논문의 재사용 허용 수준도 저자가 결정하여 CC-By 또는 CC-By-NC, CC-By-NC-ND에서 선택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지만, 전환계약이 체결된 기관 내 적격 저자가 논문의 OA 출판 옵션을 선택하더라도 워크플로우 상 저자 약관에는 ‘저자가 논문의 출판과 배포, 논문의 수익화 관련 독점적 권한을 Elsevier에 부여한다’는 문구가 <그림 2>와 같이 포함되어 있고, 이 약관에 동의해야만 OA 출판 절차가 완결된다.



*"I understand that the license of publishing rights I have granted to the Journal gives the Journal **the exclusive right** to make or sub-license commercial use (본인은 저널에 부여한 출판권 라이선스가 저널에 상업적 사용 또는 재라이선스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림 2> OA 전환계약서와 저자 출판 계약서 간 상충 문구

이는 전 세계 도서관계에서 OA 전환계약을 추진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도서관에서 체결한 OA 전환계약서 관련 조항과도 상충한다. 그러나 기관의 OA 전환계약서와 저자가 출판사와 맺는 저자 출판 계약서 간 비일관성 문제는 Wiley 등 타 출판사 사례에서도 종종 발견되곤 한다.⁷⁾ 이에 도서관에서는 OA 전환계약서뿐만 아니라 저자 출판 계약서 또는 약관을 확인하여 OA 전환계약과 상충하는 조항의 수정을 출판사에 요구하고 OA 전환계약과 OA 출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연구자들이 이러한 약관에 동의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이용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 컨소시엄 차원의 도서관 주도 OA 전환계약 표준 모델 개발

OA 전환계약은 전자학술정보의 접근 및 이용뿐만 아니라 OA 출판 주체와 대상의 적격 범위 제한, 비용 처리, 미승인된 이용, 서비스 중단, 권리 침해 관련 배상, 책임, 면책 등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안을 다루고 있으므로, 도서관-출판사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할 수 있다. 출판사는 자사 이익을 극대화한 계약서를 전 세계 도서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자 하고, 동일한 콘텐츠 품목에 대해서도 계약 유형이 다르면 계약서 구조, 용어, 세부 조항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는 더 많은 출판사와 OA 전환계약을 체결할수록 더 다양한 포맷과 내용의 계약서를 검토하고 세부 조항별 유불리를 따져 출판사와 협상해야 한다. 이 과정을 개별 기관의 담당 사서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출판사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양한 OA 전환계약서에서 공통 구조 및 공통된 조항을 분석해 내고, 기관 및 OA 기반 학술 생태계 구축에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컨소시엄 차원의 표준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V. 결 론

전 세계적으로 OA 기반 학술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도서관계는 OA 전환계약 체결을 통해 대규모 OA 전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OA 전환계약에는 OA 출판 지원과 관련된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존 도서관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넘어선다는 반론도 존재하지만, 3.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전 세계 도서관계에서는 OA 전환계약 및 OA 출판 지원 업무를 도서관과 도서관 컨소시엄의 기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국내의 경우 OA 전환계약이 비교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도서관과 연구도서관은 관련 경험이 부족하고 연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로 인해 현재 도서관 현장에서는 OA 전환계약 라이선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관과 학술 커뮤니티의 요구 사항에 적합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7) <https://authorsalliance.substack.com/p/read-your-open-access-publishing>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연구가 미진한 OA 전환계약과 OA 전환계약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전 세계 OA 전환계약 체결 현황을 조사하고 OA 전환계약서와 구독 계약서의 차이를 파악하였으며 OA 시대 계약서의 쟁점을 논하였다.

OA 전환계약 현황 분석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OA 전환계약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RAP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OA 전환계약은 유럽에서 가장 많이 체결되며, 다른 대륙에 속한 국가에서도 OA 전환계약이 체결되고 있었다. 그러나 OA 전환계약 확산 추세와 달리 OA 전환계약서의 공개는 미진하였고 유럽과 북미를 제외하고는 OA 전환계약서를 공개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전 세계에서 OA 전환계약을 체결한 출판사는 62개인 반면 국내에서도 OA 전환계약을 체결한 출판사는 10개뿐이므로, 공개된 OA 전환계약서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다양한 출판사와 OA 전환계약을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OA 전환계약서와 구독 계약서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형 출판사 중 하나인 Elsevier에서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계약서를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독 계약서와 OA 전환계약 유형별 계약서의 구조와 45개 세부 조항을 분석한 결과, 계약서 간 전체적인 구조는 유사하되 세부 내용이 상이한 26개 조항이 확인되었다. 이들 중 11개 조항은 OA 출판 권한 및 전환계약과 관련하여 세부 조항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었으며, 15개 조항은 OA 출판 및 전환계약과 관련되지 않았음에도 계약 유형마다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조항과 관련된 이슈를 추가적으로 조사함으로써 논문 콘텐츠의 AI 활용을 공정 이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확인하고 TDM 및 AI 활용 금지 조항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였다. 또한 저자가 출판사와 맺는 저자 출판 계약서와 OA 전환계약서 사이의 비일관성 문제를 밝혔으며 OA 전환계약 모델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OA 전환계약은 OA로 출판되는 논문의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OA를 확산시킬 수 있는 분명한 방안이다. 그러나 도서관 현장에서 OA 전환계약의 개념과 계약서 조항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면 OA 전환계약의 확대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동일한 출판사의 동일한 품목에 대한 계약서를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유형에 따라 세부 조항의 차이가 상당함을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도서관 사서들이 전자 자원 계약 체결에 더욱 큰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OA 전환계약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OA 전환계약이 확대됨에 따라 출판사별 계약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동일 출판사 내 다른 유형의 계약서를 파악하는 것까지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도서관 사서의 장기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이용자의 권리를 충분히 반영한 OA 전환계약의 확대를 위해서는 표준계약서의 개발이 필수적일 것이다.

OA 전환계약의 현황을 조사하고 OA 전환계약서의 추가 조항을 분석하며 OA 환경에서 대두

된 쟁점을 확인한 본 연구는 OA 전환계약서의 표준화를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방법론과 관련하여 OA 전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표하지 않은 계약은 현황 조사에 포함할 수 없었다는 제한점이 존재하며, 계약서 분석 과정에서도 계약서마다 상이한 계약 주체로 인해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OA 전환계약서의 사례를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계약서의 표준적인 구성과 항목을 제안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류시원 (2024).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정책 형성절차에 관한 제언. 법제, 704, 109-146.
- 정영임 (2021). 학술출판 서비스 인공지능 적용 현황 (AI TREND WATCH 2021-22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영임 (2023. 7. 20.). 전자정보 계약서 분석 및 OA 시대 표준계약서 마련 방안. 국정협 온라인 세미나.
- 정영임, 김재훈, 김정환 (2010). 해외 표준계약서 비교분석을 통한 KESLI 컨소시엄 표준계약서 통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KSLA Bulletin, 2, 43-56.
- 정영임, 김환민, 정진우, 안병균, 김완중 (2024). 국내외 OA 출판 확산에 따른 국내 주요 기관 OA 전환 비용 분석. KISTI 이슈브리프 제70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8). KESLI 표준계약서 모형 개발 연구.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5). 컨소시엄 리스트. KESLI. 출처:
<https://www.kesli.or.kr/web/selectCoiConsList.do?key=138>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4). 대학라이선스 DB목록. ACE KERIS 대학라이선스. 출처:
<https://ace.riss.kr/library/consDB/consDBList.do>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3). 대교협 컨소시엄 표준 계약서.
- 황옥경 (2004). 전자저널 라이선스 계약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1), 199-228.
- Bebbington, L. (2001). Managing content: licensing, copyright, and privacy issues in managing electronic resources. Legal Information Management, 1(2), 4-12.
<https://doi.org/10.1017/S1472669600000360>
- Clifford, L., Rachael, S., Heather S., & Richard, S. (2023, December 19). Closing plenary: Open access, open scholarship, & machine learning: a panel & community conversation. CNI: Coalition for Networked Information. Available:

- <https://www.youtube.com/watch?v=9ABziVkLAm0>
- Cox, J. (2000). Model generic licenses: cooperation and competition. *Serials Review*, 26(1), 3-9.
- CRKN(Canadian Research Knowledge Network) (2013). History of CRKN. Canadian Research Knowledge Network. Available: <https://www.crkn-rcdr.ca/en/history-crkn>
- David, F. & Vinh-The, L. (2003). Canadian national site licensing project: getting ready for CNSLP at the university of saskatchewan library. *The Serials Librarian*, 43(3), 39-57.
- ESAC Initiative (2014). ESAC Transformative Agreement Registry. ESAC. Available: <https://esac-initiative.org/about/transformative-agreements/agreement-registry/>
- ESAC Initiative (2015). Guidelines for transformative agreements. ESAC Initiative. Available: <https://esac-initiative.org/about/transformative-agreements/guidelines-for-transformative-agreements/>
- Hinchliffe, L. J. (2019, April 23). Transformative agreements: A primer. The Scholarly Kitchen. Available: <https://scholarlykitchen.sspnet.org/2019/04/23/transformative-agreements/>
- Hoffman, E. (2005). The Canadian national site licensing project and the logic model. *The Bottom Line*, 18(1), 14-23. <https://doi.org/10.1108/08880450510582015>
- ICOLC(International Coalition of Library Consortia) (2024, March 22). ICOLC statement on AI in licensing. ICOLC. Available: <https://icolc.net/statements/icolc-statement-ai-licensing>
- JISC(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 (2023a). Jisc Model Licences. Licence subscriptions manager. Available: <https://subscriptionsmanager.jisc.ac.uk/about/jisc-model-licence>
- JISC(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 (2023b). Guide to the Model Licence (FAQ). Available: <https://subscriptionsmanager.jisc.ac.uk/about/guide-to-model-licence>
- LIBLICENSE Project (2015). Liblicense Model License Agreement with Commentary. Center for Research Libraries. Available: <http://liblicense.crl.edu/wp-content/uploads/2015/05/modellicensenev2014revmay2015.pdf>.
- NISO(National Information Standards Organization) (2008, January 5). NISO issues best practices for Shared E-Resource Understanding (SERU). *Library Technology Guides*. Available: <https://librarytechnology.org/pr/13055>

- NISO(National Information Standards Organization) (2015, May 31). Shared E-Resource Understanding (SERU). NISO. Available:
<https://www.niso.org/standards-committees/seru>
- Okerson, A. (1997, April 24-25). The transition to electronic content licensing: the institutional context in 1997. Paper presented at the Scholarly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Conference of the Andrew. W. Mellon Foundation, Emory University, US.
- Rachael, S. (2023, October 24). UC Berkeley Library to Copyright Office: Protect fair uses in AI training for research and education. Berkeley Library Update. Available:
<https://update.lib.berkeley.edu/2023/10/24/uc-berkeley-library-to-copyright-office-protect-fair-uses-in-ai-training-for-research-and-education/>
- Rachael, S., Timothy, V., & Samantha, T. (2024, January 10). Licensing research content via agreements that authorize us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uthors Alliance. Available:
<https://www.authorsalliance.org/2024/01/10/licensing-research-content-via-agreements-that-authorize-uses-of-artificial-intelligence/>
- Sag, M. (2023). Copyright safety for generative AI. *Houston Law Review*, 61(2), 295-347.
<http://dx.doi.org/10.2139/ssrn.4438593>
- Sandiumenge, I. (2023). Copyright Implications of the Use of Generative AI. SSRN.
<http://dx.doi.org/10.2139/ssrn.4531912>
- SERU: A Shared Electronic Resource Understanding. NISO RP-7-2012.
- UC Publisher Strategy and Negotiation Task Force (2019). Negotiating with scholarly journal publishers: A toolkit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UCSF: Department of Orthopaedic Surgery. Available: <https://escholarship.org/uc/item/8cn0q1nw>
- Wise, A. & Estelle, L. (2023). A free toolkit to foster open access agreements. *Insights: the UKSG Journal*, 36(1), 3. Available: <https://doi.org/10.1629/uksg.585>.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Hwang, Ok-Gyung (2004). A study on the model license for electronic journ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8(1), 199-228.
- Jung, Youngim (2021). Current Status of AI Applications in Scholarly Publishing Services (AI TREND WATCH 2021-22),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Jung, Youngim (2023, July 20). Analyzing electronic information license agreements and preparing model agreements for the Open Access era. Online Seminar.
- Jung, Youngim, Kim, Hwanmin, Jeong, Ginu, An, Byoung-goon, & Kim, Wanjong (2024). Analysis of the costs of the transition to Open Access for major domestic research an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ith the global expansion of Open Access publishing. KISTI Issue Brief, 70,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 Jung, Youngim, Kim, Jae-Hun, & Kim, Jeong-Hwan (2010). Study on Availability of KESLI Consortium Model License by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national Standard License Models. KSLA Bulletin, 2, 43-56.
-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2023). Standard Contract of the University Consortium.
-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2004). University license Database list. ACE KERIS University License. Available: <https://ace.riss.kr/library/consDB/consDBList.do>
-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2008).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KESLI Standard Agreement Model. Daejeon: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2015). Consortia list. KESLI. Available: <https://www.kesli.or.kr/web/selectCoiConsList.do?key=138>
- Ryu, Shiwon (2024). Recommendations on copyright policy making process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Government Legislation, 704, 109-146.

